

□□□ □□□□□□ □□ □ □□ □ □□...

□□□□□□ □□ □□□□ □□ ‘□□□ □□ □□’



지난 4월까지 한국근대문학관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한 근현대 베스트셀러 소설들만을 모아 전시한 특별전 '소설에 울고 웃다'가 진행됐다. 출처 : 한국근대문학관

□□□□ □□□□ □ □□□□ □□□□ □□ □□□□ □□□□□□□□□□ □□□□. □□□□ 2017□ 9□□□ □ □ 4□□□ □□□□□□□□ □□□□□□□□ □□□ □□□ ‘□□□□ □□ □□’□ □□□□□. □□ □□□ □□□ □ □□□ □□ □□ □□□ □□□ □□□□ □□□□ □□□□ □□□□ □□□□.

□□□□ □□□□□□□□ 1980□□□□ □□□□□ □□□ □□□ □□ 24□□ ‘□□□□□□’ □□□□ □□□ □□□ □□□ □□□ □□□ □□□ □□□ □□□□.





고단한 현실을 견딘 힘이 되다



비록 일제 식민지이긴 했지만, 1930년대는 한국 근대문학이 화려하게 꽃핀 시대였다. 일반 단행본은 물론 다양한 문고본과 전집류도 인기리에 발간되었으며, 사회주의 경향의 작품들까지 잘 읽히는 등 근대 출판시장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고, 또한 동시에 이들 작품들을 사서 읽어 줄 독자층도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갔다. 브나로드 운동으로 대표되는 농촌계몽을 주제로 한 이광수의 『흙』과 사회주의 시각에서 농촌의 현실을 그린 이기영의 『고향』, 육체적 사경을 초월한 정신적 사경을 강조한 『사랑』은 모두 발간된지 채 5년도 못돼 각각 8판과 6판, 9판을 찍었을 정도로 많이 읽혔다. 특히 일제 통치가 정점 군국주의로 바뀌게 되는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수십 판을 찍는 초 거대 베스트셀러가 등장한다. 지고지순한 사랑과 희생을 그린 박계주의 『순애보』는 판당 1천부에서 금기어 해방 직전에는 5천부를 발행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끈 작품이다. 『유물관』이라는 한국형 황진이 활약하는 김내성의 『마안』은 1950년대 중반까지 33판을 거듭할 정도로 장안의 자가를 높인 탐정소설이다. 당시 독자들은 이런 소설들을 읽으며 점점 극심해지는 일제 탄압의 현실을 견뎌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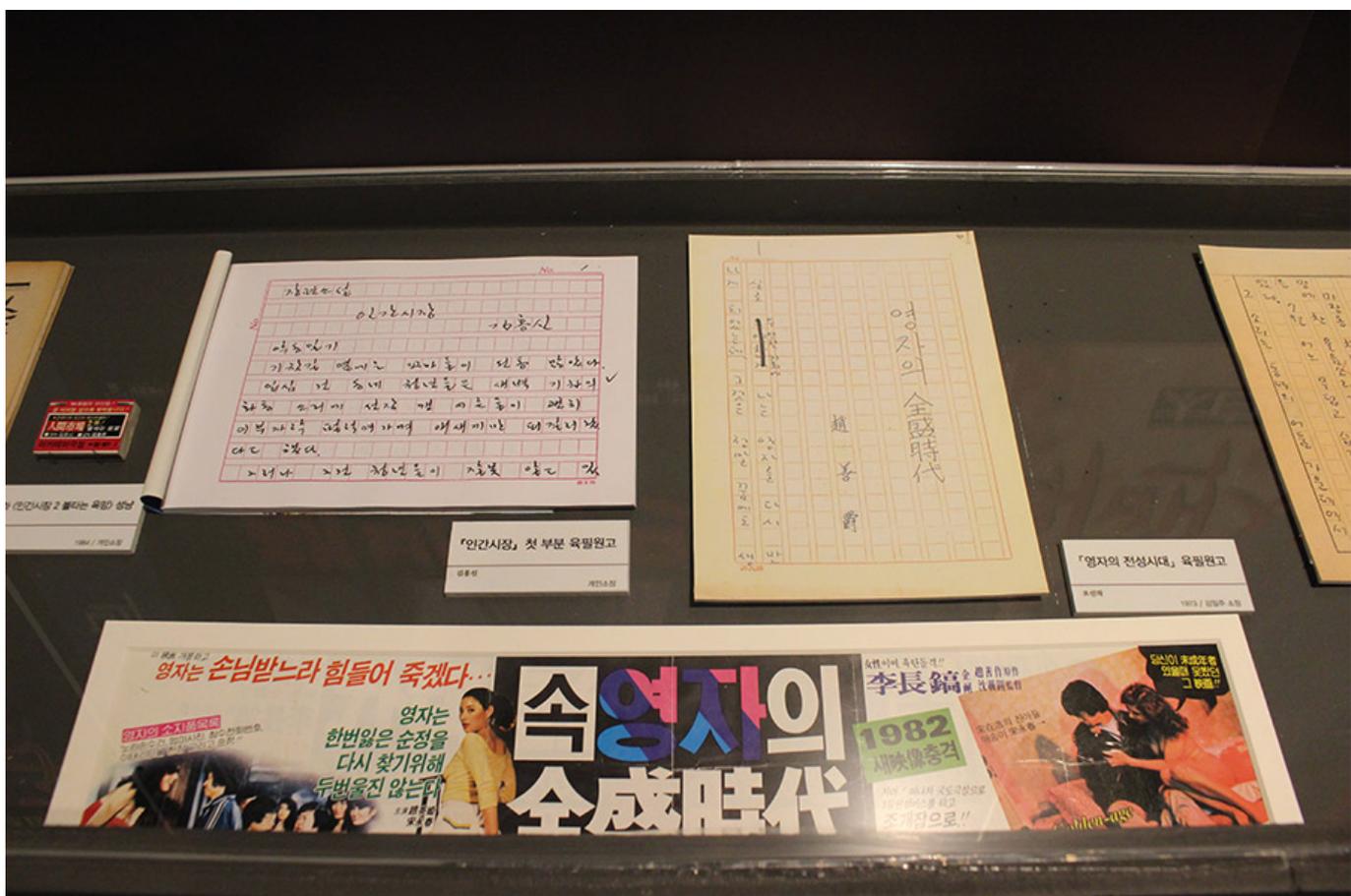
가장 많이 읽힌 소설은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는 데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된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량

어떤 책이든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는 왜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best-seller)란 어떤 책이든 많이 읽히는 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베스트셀러는 어떤 책이든 많이 읽히는 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베스트셀러란 어떤 책이든 '베스트셀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니다. 베스트셀러란 어떤 책이든 많이 읽히는 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베스트셀러란 어떤 책이든 많이 읽히는 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날로그 문학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작가들의 쓰던 애장품도 함께 전시됐다.
출처 : 취재기자 정해량

